

카지노 이용자의 자살에 대한 심리적 부검 연구

강 준 혁
(성균관대학교)

이 근 무
(성균관대학교)

이 혁 구*
(성균관대학교)

이 연구는 심리적 부검 방식을 활용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자살원인을 탐색하고, 카지노 도박과 자살이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에 부합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자살한 3명의 카지노 도박자들을 사례로 선정하고 그들의 유족(아내)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Padgett(1998)이 제안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인들의 자살원인은 평소 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 분노, 공허감 등의 부정적 정서,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소극적인 대인관계, 자살징후에 나타난 심리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카지노 도박과 자살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카지노 도박으로의 '빠져듦과 늦은 후회',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관계악화', 도박과 자살의 '유전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카지노 도박자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주요용어: 카지노 도박, 자살, 가족, 심리적 부검

이 연구는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KLACC)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 교신저자: 이혁구, 성균관대학교(leehk@skku.edu)

■ 투고일: 2014.7.31 ■ 수정일: 2014.9.25 ■ 게재확정일: 2014.10.7

I. 서론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어찌 보면 늘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받아드려야 할 숙명(宿命)이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애써서 그 숙명을 앞당기려 하는가? 무엇이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가? 이렇게 죽음을 스스로 앞당기는 행위를 우리는 ‘자살’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OECD회원국 중 10년째(2003~2012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OECD, 2014), 하루 평균 약 43.6명, 즉 33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이만큼 자살은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자살문제는 카지노 도박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08년부터 2013년(9월 기준)까지 약 6년 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인해 4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김기선, 2013). 특히, 카지노 도박과 연계된 자살은 카지노 업계의 아킬레스건이자 도덕적 비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카지노 도박과 연계된 자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지 자살이 카지노 도박의 여러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카지노 도박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연구들은 주로 카지노 출입자의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 여부(정선영 외, 2006; 이태원 외, 2008), 실제 자살비용(Chew et al., 2000; Nichols et al., 2004) 등을 통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실에서의 자살은 하나의 요인과 단순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자살은 개인의 타고난 신체적 조건, 성격적 기질, 성장과정에서의 경험 등과 더불어 사망 당시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 알코올 및 약물 등의 매개물질, 촉발사건 등이 결합된 매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카지노 자살의 경우 무조건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후 절망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다. 세상에는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고도 자살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와 같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고인을 찾아가 집적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未知生 焉知死: 미지생 언지사)”라고 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그들

이 죽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 부검, 법의학 수사, 통계적 보고 등 죽음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들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살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 그리고 자신이 머물렀던 물리적 공간에 남기고 간 삶의 흔적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고인의 자살 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신원성, 2005). 심리적 부검은 고인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서비스 제공자 등의 증언뿐만 아니라 고인이 남긴 유서, 일기, 편지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자살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살이라면 왜 자살을 하게 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게 도와준다(Shneidman,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부검 방식을 활용하여 카지노 이용자들의 자살원인을 분석해 보고, 실제 카지노 도박과 자살이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카지노 도박자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카지노 이용자들의 자살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카지노 도박과 자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II. 이론 검토

1. 도박과 자살에 대한 이해

가. 도박의 위험성

많은 사람들은 '대박'이라는 환상을 좇아 카지노라는 '꿈의 궁전'으로 들어간다. 말 그대로 '꿈의 궁전'이다. 현실에서의 대박은 홀연히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이라는 묘한 매력은 인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매력(魅力)이 곧 마력(魔力)으로 변하는 순간, 사람들은 무언가에 쫓긴 듯 뜨거운

불길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마력이 도박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마저 중단시키는가? 도박자들에게 있어서 도박은 힘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도피의 수단’이자 한방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스릴감 넘치는 게임’이다. 도박자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순간 괴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흥분과 쾌감이 그들을 찾아온다. 그러나 알코올, 약물 등 다른 중독과는 달리 도박중독자들은 부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단기간에 큰돈을 벌고자 함으로써 이른바 ‘한방’을 꿈꾼다. 더욱이 도박판에서 주어지는 ‘간헐적 보상’은 돈을 딸 수 있다는 도박자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더욱 강화시킨다.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마력에 사로잡혀 도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채 ‘도박장 속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김충렬, 2010: 230-249).

일단 도박중독에 이르면 불안, 우울, 절망감, 고립감, 창피함, 후회스러움 등의 부정적 감정들이 인간의 정신을 움아매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박중독자들은 범죄에 대한 충동, 건강악화 등 개인의 내적 문제와 가족과의 갈등, 대인관계 단절 등의 외부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다(이경희 외, 2011). Lester와 Jason(1989)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 카지노에서 자살한 도박중독자들 역시 이와 같은 정신적 문제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박중독은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인혜(2005)의 연구에서 카지노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정서, 주관적 안녕감, 그리고 자아존중감 측정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도박문제를 경험할수록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도박중독은 자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킴으로써 삶의 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병적 도박중독자의 경우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알코올 의존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병적 도박 집단의 신경심리학적 특징을 분석한 현미지 외(2013)는 병적 도박 집단의 경우 알코올 의존 집단보다 부주의하고 충동적이며, 위험성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물론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박중독의 위험성이다. 도박중독은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Batterby et al., 2006).

나. 자살에 대한 이해

카지노 도박과 연계된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살(自殺)’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살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인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살이라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위해서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자살의 사회학적 이해

먼저 자살에 관한 고전적 정의는 Durkheim(1897)의 ‘자살론(Le suicide)’에서 찾을 수 있다. Durkheim(1897)에 의하면 자살은 “희생자가 그 행동의 정상적인 결과를 확실히 알면서 치명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존재한다.” 즉, 동기가 어떻든 간에 자살자는 행위의 순간에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Durkheim은 사회통합의 측면과 사회규제의 측면에 따라 자살을 각각 네 가지 유형(이기적인 자살, 이타적인 자살, 아노미성 자살, 숙명적 자살)으로 구분하였다(Durkheim, 1897).

이기적 자살은 사회가 충분히 통합되지 않아 개인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보다 강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자살을 의미한다. 반면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지나치게 그 사회에 통합됨으로써, 그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심정으로 자살한 경우를 말한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와 개인 간의 통합 상태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통상적인 규준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 가장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욕망의 규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규범상태인 아노미(Anomie) 현상이 증가한다. Durkheim은 아노미 현상을 경제 발전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전통적 행위 지침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넘치는 야욕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한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에 대한 희망을 품지만, 자신의 비현실적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박병철, 2008). 도박을 통해 대박을 꿈꾸다 좌절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숙명적 자살은 사회가 개인을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규제할 때 발생한다. 이때 개인은 억압적인 운명 혹은 사회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상실하게 된다.

자살에 대한 Durkheim의 이러한 정의는 결과에 대한 확실한 예상이 없다는 이유로

폭음이나 약물복용과 같은 이른바 ‘장기분할자살’을 제외하고 있다(박형민, 2010: 27). 이는 자살 행위를 의식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2) 자살의 심리학적 이해

자살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으로는 정신분석, 실존주의, 행동주의, 인지적 접근 등이 있다(여은경, 2012). 먼저 정신분석학에서의 자살에 대한 관점은 Freud(1917)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Freud는 1917년 그의 논문 “애도와 우울증(Mourning and Melancholia)”에서 자살을 우울증과 연결 지어 설명하였으며, 우울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아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기증오(self hatred)는 사랑 하던 대상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것이며, 그 대상에게로 향하던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전향될 때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이준우·손덕순, 2007). 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 사람에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내재화 된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육성필, 2008: 84). 다음으로 Menninger(1973)는 자살행위의 요소들을 ‘죽이고 싶은 소원’, ‘죽음을 당하고 싶은 소원’, ‘죽고 싶은 소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죽이고 싶은 소원’은 ‘파괴적 본능’과 연관이 있다. 인간의 ‘파괴적 본능’은 출생 시부터 외부로 돌려진 공격성을 말한다.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으로부터 나온다. ‘죽음을 당하고 싶은 소원’은 ‘양심’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으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양심의 본질 속에 있는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학적 소망은 고의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다거나 무의식중에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김남식, 1999). 특히, Menninger(1973: 32)는 “자살은 죽이고 싶은 소원과 죽임을 당하고 싶은 소원 이외에 그저 ‘죽고 싶은 소원’이 더해지지 않으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우리는 병원 응급실에서 자살 미수자들이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죽고 싶은 소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Sartre(1943)는 주체를 객체로 만들어 버리는 타자의 ‘시선’과 그 시선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인간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의 시선은 인간존재가 갖는 의식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시선은 나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든

다(변광배, 2005). 가령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은 자유롭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때 누군가가 그곳에서 나를 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갑자기 내 행동의 이상함을 온전히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타자에게 '드러나 있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다(Sartre, 1943: 386). 결국 카지노 도박으로 인해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대상에게 타자는 상처 줌을 통해 개입하게 되고 대상은 타자의 시선 앞에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도박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타자와의 필연적 관계는 멈출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때 자살은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로 작용한다(이현주, 2009).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우울증을 학습된 무기력과 연결 지어 설명한다. Seligman(1975)은 동물실험¹⁾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안이 고조된다고 언급하였다. Seligman(1975: 45)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상적 경험을 하게 되면 후에 이러한 외상적 경험에 대처하여 반응하려는 동기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나갈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하게 된다(이용식, 2004).

특히, Seligman은 우울증 증상과 학습된 무기력의 증상이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학습된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어떤 결과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우울증 치료법의 중심적 목표를 "자기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다시금 획득하도록 해주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자살은 우울증과 많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우울증의 인지이론은 1960년대 Beck(1963, 1964)에 의해 언급되었다. 인지이론에서 개인의 정서와 행동은 주로 그가 세계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지모형에서는 우울증이나 기타 증상들을 인지가 부정적인 방향으

¹⁾ 이 실험에서 실험자들은 개들을 조임틀에 묶어 놓고, 큰 소리를 들려준 다음 전기충격을 줌으로써 고전적 조건형성을 시켰다. 이후 고전적 조건형성 장치에서 도피할 수 없는 전기충격을 받았던 개들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Seligman, 1975).

로 활성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Beck et al., 1979).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잘못 인지하게 되면 슬픔, 분노 등 실제로 버림받았을 때의 부정적 감정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지이론에서는 자살욕구도 하나의 부정적 인지의 결과로 설명한다. Beck과 동료연구자들(1979: 27)에 의하면 자살욕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의 극단적 표현”이라고 언급하면서 “우울한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이 짐만 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죽는 편이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훨씬 낫다고 믿는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든다. 이는 우울한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위한 지각을 덮어버리고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Ellis & Newman, 1996).

3) 자살의 생물학적 이해

자살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자살자의 의지보다는 생리적 조건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살을 가능하게 만드는 생리적 조건이란 일차적으로 자살 행동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자살률과 유전성을 문제 삼는다(김충렬, 2008).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이른바 ‘자살 집안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살에 대한 유전성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Sorenson & Rutter, 1991). 그러나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자살에 이미 노출된 상태라는 점 혹은 가족구성원의 행동을 보면서 자살을 삶의 문제나 병에 대처하는 나름대로 합당한, 심지어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배울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할 수 있다(Jamison, 1999). 따라서 유전적으로 어떠한 불안정한 기질이 잠재되어 있고 거기에 조증, 정신이상, 알코올중독 등이 가세하거나 또는 그 잠재된 기질을 자극할 경우 자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Jamison, 1999).

다. 자살 위험 요인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하는가? 자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자살의 취약성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김효창(2006)은 사건 기록지에서 자살 취약성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 하였다. 총 79사례를 추출하였으며, 항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언급된 취약성 요인 전체 79사례 중 개인적 요인이 48사례(60.8%)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환경적 요인이 29사례(36.7%)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이 2사례(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환경적 요인 중 경제적 문제에 '도박 빚'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도박 빚 문제가 카지노 이용자들의 자살과 연관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최근 심리적 부검을 통해 한국 자살사망자의 특징을 분석한 서종한 외(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나 직장에서의 적응 정도가 가장 중요한 자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자살 전 주변에 걱정이나 문제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과거 동거인 혹은 동거인과의 심각한 문제, 어린 시절에 대한 불행감도 자살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 자살 연구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에서는 상담자들이 자살 위험 징후를 쉽게 사정(assessment)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10개의 글자들을 조합한 "IS PATH WARM?"이라는 암기법을 제정하였다(Juhnke et. al., 2007). 이 조합된 문장은 ① Ideation(자살관념: 자살하고자 하는 의도), ② Substance abuse(약물 남용: 알코올 및 다른 약물에 대한 과도한 사용), ③ Purposelessness(목적 상실: 삶의 목적 상실에 대한 언급), ④ Anxiety(불안: 불안하거나 초조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잠), ⑤ Trapped(갇힌 기분: 갇혀 있다고 느낌, 현 상황에 출구가 없다고 믿음), ⑥ Hopelessness(희망 상실: 스스로에 대해, 타인에 대해,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함), ⑦ Withdrawal(체념: 타인, 가족, 친구 및 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함), ⑧ Anger(분노: 통제할 수 없는 분노나 격노를 표현함), ⑨ Recklessness(무모함: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함), ⑩ Mood Change(감정의 변화: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함)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해 볼 때 자살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따라서 카지노 도박과 연계된 자살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심리적 부검에 대한 이해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수개월 내에 경찰, 의료

진, 검시관에 의해 기록된 정보와 고인의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담당의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제공자와의 면담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고인의 자살의지와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송혜진, 2013; 신성원, 2005). 심리적 부검연구를 주도해 온 Shneidman(2004: 31)에 의하면 “심리적 부검의 목표는 죽은 사람의 의지가 과연 무엇 인지를 밝히는 것인데, 만약 죽은 사람이 실제로 죽음을 원했던 것이었다면 자살, 죽음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심리적 부검이 실시될 수 있는데, 이때 심리적 부검의 목표는 자살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심리적 부검은 자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및 지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덜어줄 수 있다(Shneidman, 2004).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조사는 부검(Autopsy), 법의학 조사(Forensic investigation), 인구통계학적 보고(statistical or demographic reports), 심리학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사인(死因)을 밝히기 위한 이 네 가지의 조사방법들은 종종 혼동되기도 한다(Shneidman, 1994). Shneidman(1994)은 이를 구분하기 위해 네 가지 조사방법들이 갖는 고유한 특징들을 설명하였다. 그 특징들은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흔적이나 통계적 수치에 의존하는 부검, 법의학 조사, 인구통계학적보고와는 달리 심리적 부검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죽음에 대한 고인의 의증을 파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죽음에 대한 조사방법들의 특징

조사방법	특징
부검 (Autops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 질병의 특성 및 정도, 죽음의 형태 등을 알아내기 위해 시체에 대한 조사(inspection)나 부분적인 해부를 함 • 내과 의사-병리학자 또는 그들의 보조자에 의해 실행됨 • 뇌의 무게, 혈중 알코올, 간의 모양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함 • 병리학자는 공공기록물 작성을 위해 사망자에 대한 죽음에 대해 보고하며, 법정조언자 역할을 함 • 부검은 특정 죽음의 형태를 결정내리거나 특정 개인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 아님

조사방법	특징
법의학 조사 (Forensic investi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을 둘러싼 신체적 증거와 관련됨 • 다양한 세부사항을 포함함 : 열려있는 창문, 닫힌 문, 지문, 필체 분석, 개인 문서(유서, 협박편지, 수표 등) • 의식적·비의식적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음 • 자료가 때때로 선별적으로 보고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되기도 함
통계적·인구학적 보고 (statistical or demographic repo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예방에 관심이 있을 때, 개인들의 자살 패턴에 관한 지식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자살에 관한 많은 통계적 사실들은 특정 사례에 대해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음 • 각 개별적 사건은 통계에 의해 조정되지 않음
심리적 부검 (Psychological autops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의 형태(자연사, 사고, 자살, 살인)에 대해서는 망자의 의도에 의존함 • 부검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임 • 삶의 방식, 인지적 기능, 행동적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기여한 특징적 요소를 살펴봄 • 죽음의 심리적(동기적, 의도적) 양상에 관한 행동과학에서의 공정한 조사임 • 사망자를 알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죽음과 관련된 개인의 문서(유서, 일기, 편지)와 다른 자료들(부검과 경찰 보고를 포함한)을 연구함

자료: Shneidman(1994)이 제시한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정리함.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심리적 부검은 현재 법의학(의문사에 대한 원인규명), 보건학(자살연구, 자살예방활동, 자살사건 유족 사례관리 등), 법률소송(보험지급 관련 소송, 산업재해 인정 보상 소송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도박과 관련된 심리적 부검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박과 자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외 선행연구에 비추어 한국적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심리적 부검 방식을 활용하여 도박과 연계된 44개의 자살사례를 분석한 Blaszczynski와 Farrell(1998)의 연구는 도박중독과 자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표 2. 도박중독과 자살의 연관성

항목	내용	비고
유서	유서에 도박문제, 도박으로 인한 직장문제, 건강문제, 재정문제 등이 언급되었으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자살의도를 언급하기도 함	사망자 중 1/4가량이 유서를 남김

항목	내용	비고
만성질환(co-morbidity)	고인들은 과거 또는 사망 당시 우울증을 겪었으며, 알코올 남용, 약물남용 등의 물질남용 문제를 겪음	
자살시도 경험과 자살관념	14명(31.8%)이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있으며, 3명은 사망 전 주변에 자살생각을 표현함	
심리적 스트레스	도박자들은 재정문제, 관계문제(형제, 자녀, 배우자와의 사별), 직장문제(실직,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음	모든 사례에서 재정문제가 드러남
도박, 범죄, 자살문제의 연관성	사례 중 8명은 도박(습관)을 지속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름	예) 도박을 위해 부모님의 돈을 훔쳐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죽음을 선택함
도움 찾기(seeking help)와 자살	고인들은 자조모임, 심리치료사, 상담사, 정신과 의사, 일반 의사 등을 찾아가지만, 치료절차, 상담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도움 찾기'를 거부하는 특징을 보임	도박자들 4명 중 1명은 자신의 중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 찾기'를 시도함
성격 특징	외로움(고독), 우울증, 내향성, 낮은 자존감이 도박중독과 연계된 자살자들의 특징임	고인들의 이웃, 친구들의 진술에 근거함

자료: Blaszczynski와 Farrell(1998)이 제시한 주요 연구결과를 연구자가 표로 정리함.

특히, 도박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부검 연구의 경우 사례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먼저 양적인 분석 결과들에서는 주로 도박중독자들의 자살과 일반 자살자들의 특성을 계량적 방법으로 비교함으로써 도박중독자의 자살 요인들을 설명한다(Séguin et al., 2010; Wong et al., 2010). 도박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부검 사례들을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도박문제를 겪고 있던 자살자들이 일반 자살자보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더 심하게 겪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박에 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같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홍콩 지역 도박중독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 연구(Wong, et al., 2010)는 도박행위를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적 관점'이 도박문제를 겪는 개인으로 하여금 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아직 도박과 관련된 심리적 부검 연구가 미비한 한국적 상황에서 도박중독과 연관된 자살문제를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질적인 방식으로 도박중독자의 삶을 재구성한 기존 심리적 부검 연구 (Anderson et. al., 2011)는 자살원인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요인들은 난폭함과 위협을 감수하는 행위, 충동성, 우울증, 자살 시도 경험, 도박중독, 빚, 질병(예: HIV), 직장에서의 해고, 사회적 배제(social decline)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수치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부검 사례를 분석할 때는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사례 선정

연구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사례 선정을 위해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활용하였다. 유의적 표집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카지노 도박과 연계된 자살’이라는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Patton, 1990). 앞서 설명 했듯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원인은 고인과 가까이 지내던 유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밖에 없다. 이에 연구자들은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의 도움을 얻어 6명의 잠재적 연구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언제든지 연구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2명은 불행하고 힘든 기억을 떠올리기 싫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면담 시작 전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했다. 나머지 1명은 면담 수행 중 부정적 정서가 재현되는 조짐이 보였고 연구자들은 면담을 중단하고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상담을 연결했다. 상담 종료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희망했으나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한 끝에 연구보다 연구 참여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게 이를 설명했고, 연구 참여자는 탈퇴에 동의했다. 따라서 수도권 D시, E시, Y시에서 자살한 3명의 과거 카지노 도박자들을 사례로 선정하고 그들의 유가족(아내)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 3. 사례별 기초정보

유족(연구 참여자)			고인					
사례 번호	성별	고인과의 관계	성별	사망 당시 나이	유서 유무	사망 형태	사망 장소	비고
1	여	부인	남	63	유	목매	야산	장의사업
2	여	부인	남	49	유	음독	야산	정육점 운영
3	여	부인	남	40	유	음독	호텔	약국 운영

사례 1에서 고인은 2009년 4월에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나이는 63세였다. 고인은 54~55세경부터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했으며, 도박 빚으로 인해 아파트 한 채와 시가 20억 정도 되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후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유족은 부인과 아들 둘, 딸 하나이며 이 중 부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사례 2에서 고인은 2010년 8월에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나이는 49세였다. 고인은 2000년대 중반 사업이 어려워지자 도박을 시작했으며, 약 4년을 카지노 도박과 하우스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5억 원 가량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결국 고인은 사채를 빌려 마지막 베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야산에서 유서를 남긴 후 맹독성 제조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족은 부인과 딸 둘이며 이 중 부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사례 3에서 고인은 2011년 10월에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나이는 40세였다. 고인은 평소 인터넷 도박게임을 좋아했으며, 38세부터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고인은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 도박자금으로 활용했으며, 5천만 원 정도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사채 빚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후 고인은 Y시 한 호텔에서 유서를 남긴 채 다량의 수면제와 양주 1병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족은 부인이며 연구 참여자 역시 부인이다.

2. 자료 수집

가. 면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반(半)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제작하여 면담에 활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2009년 한국자살예방협회(2009)가 개발한 “심리적 부검 면접 조사 도구”를 참조하여 사망 당시의 상황, 과거 생활력, 생활사건, 삶의 질, 신체 질환 및 치료 상황,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관련 지원 요청, 가족 구성, 자살 사건 발생 전 가족 상황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가 카지노 도박과 연계된 자살인 만큼 카지노 도박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지에 추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최초 작성된 질문지의 내용은 자살분야 전문가 1명과 도박중독관련 전문가 1명에게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1차 수정하였다. 1차 수정 이후 한 학기 이상 질적 연구 과목을 수강한 박사과정 2명에게 질문지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최종 수정하여 면담에 활용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면담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13년 3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전 라포(rapport)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작성된 면담 질문지는 면담 전 미리 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면담 진행에 앞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을 녹음한 후 24시간 이내에 연구자가 그대로 전사하였다. 1차면담의 소요시간은 50~100분이며, 연구 참여자 3명에 대해 각 3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Padgett(1998)이 제안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모든 사례들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주제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석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구자들은 Padgett(1998)이 제안한 분석방법이 도출된 분석결과를 기존 이론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이론을 거울삼아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유족의 증언, 유서 등에 의존하여 자살원인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적 부검 방식의 한계를 넘어 카지노 자살에 대한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표 4. Padgett(1998)이 제안한 분석 절차

순서	분석 과정	분석 방법
1	의미를 가진 단위를 찾기 위해 기록된 내용 읽기	개방적 코딩 (open coding)
2	필요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분리	지속적 비교분석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3	중심주제 형성을 위한 코드 또는 범주들 간의 관계 찾기	코드 간의 연관성 확인
4	자신의 연구를 기존의 지식기반(이론적, 실증적)과 연결시킵 - 과연 연구결과가 문헌에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가?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가? - 아니면 주제에 관한 기존 생각들이 허위임을 폭로하는가?	

자료: Padgett(1998)이 제안한 분석방법을 연구자가 표로 정리함.

4.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가.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에서의 엄격성은 연구결과나 자료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Lincoln & Guba, 1985). 이러한 연구의 엄격성은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특정 연구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연구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의 풍부한 삶의 경험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양적연구에서처럼 신뢰도나 타당도를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Padgett, 1998).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Padgett(1998)이 제시한 ①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prolonged engagement), ② 다원화(triangulation), ③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peer support group), ④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member checking), ⑤ 예외적 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 ⑥ 감사자료 남기기(audit data)의 6가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을 말할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지속해왔다. 둘째, '다원화'는 보다 명확하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 외에 고인이 남긴 유서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셋째,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이다.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는 연구자가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감시기제 역할을 하고, 연구자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이상 질적 연구 과목을 수강한 박사과정 2명과 도박중독 및 자살과 관련하여 풍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2명의 조언을 얻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member checking)'이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은 연구자가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다섯째, '예외적 사례분석'이다. 예외적 사례분석은 양적연구가 허위가설에 의존하는 것과 유사하다. 질적 연구에서 예외적 사례는 제시된 이론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인의 죽음이 카지노 도박과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감사자료(audit data) 남기기'이다. 감사자료는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 흔적을 따라가면서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구술한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해 녹취하고 전사하여 기록으로 보관하였다. 그리고 연구현장에서 기록한 메모들을 모두 정리하여 보관하였다.

나.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신성원(2005)이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시한 “심리적 부검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지침을 구성했으며, 이를 준수했다. 첫째, 적절한 면접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실질적인 면담을 위해 사전에 미리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사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3~12개월)을 주기 위해 자살 사건이 발생한지 12개월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비밀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이름, 거주지 등 연구 참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전 미리 연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언제든지 연구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 모두에게서 동의를 얻었다. 넷째, 연구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심리·정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면담 중 연구 참여자가 정서적으로 힘들어 할 경우 연구를 중단했으며, 연구 참여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IV. 사례분석 결과

1. 카지노 이용자의 자살 원인

가. 부정적인 정서

모든 사례에서 고인들은 평소 열등감, 분노, 의미 상실감, 자살관념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례 1의 경우 고인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한다. 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고인은 “평생의 한이 못 배운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특히 고인은 산악회 총무라는 직함에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참여자의

회고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두 종류의 명함을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하나는 「△△장 의사 대표 ○○○」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악회 총무 ○○○」 이었다. 그리고 장의사업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만남에서 산악회 총무 명함을 건넸다고 한다. 연구자들 중 1명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인이 총무로 있던 「△△산악회」는 단순한 동호인 모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유력인사들의 친목 모임인 동시에 정치조직이었다. 산악회 고문에는 현직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수 있고 집권여당 국회의원과도 만남도 자주 있었다. 참여자의 회고에 의하면 고인은 산악회에 가입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고 한다. 돈은 벌었지만 장의사라는 직업과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학력이 가장 큰 문제였다. 고인은 학력을 불문하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대학교」 ‘최고경영자 6개월 과정’을 수료했다. 물론 입학하는 데에도 큰돈이 들어갔다. 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시의원과 자주 교제를 했고 그의 추천으로 산악회에 가입하고 총무까지 맡았다고 한다.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과 알고 지내고 도의원, 국회의원과 교류할 수 있는 산악회 총무는 고인의 ‘열등감’을 씻어줄 수 있는 ‘사회적 신분 세탁소’와도 같았다. 고인이 평소 갖고 있던 이러한 ‘열등감’은 그가 남기고 간 유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고인이 카지노 도박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이후 산악회 사람들은 “전통과 명망이 있는 산악회 총무를 노름꾼이 맡아서 안 된다.”며 고인을 배제시켰다고 한다. 결국 고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비난을 받음으로써 배신감을 느꼈으며, 가장 믿고 있던 가족들마저 돌아서자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2의 경우 고인은 직업군인이었으나 중사로 진급한 뒤 3년 정도 있다가 퇴직을 했다. 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특별한 기술도 없이 퇴직한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는 “비리나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옷을 벗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고인은 군 동기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군인들을 혐오하는 시각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직업군인 출신이 군인을 ‘군바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군인들을 월급만 축내는 밥벌레로 비하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고인은 참여자가 다니던 교회 역시 비난했고 목사를 싫어했다고 한다. 고인이 좋아하는 ‘직업군’, ‘계층’은 없었다. 심지어는 처가 식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인의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켰다고 해석된다. 고인은 인지이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Beck과 그의 동료들(1979: 25)이 자살욕구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의 극단적 표현”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인은 사채를 끌어다 쓴 마지막 베팅에 실패한 후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 3의 경우 고인은 모든 상황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참여자의 회고에 의하면 평소 고인은 매사에 무미건조했고, 어떤 일에도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한다. 참여자의 데이트 신청에도 “쓸데없는 짓”이라며 일축했으며, 참여자가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실내인테리어를 새로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집안 분위기가 바뀐 줄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고인은 자살하기 반년 전쯤 카지노 출입을 중단했으나, 참여자의 회고에 의하면 “카지노에 대한 미련도 없었지만 반성도 후회도 없었다”고 한다. 고인의 이러한 정서 상태는 고인이 남긴 유서에도 잘 나타나 있었다.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적어놓지만 고인의 유서에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내용만 들어있었다. 그의 유서에는 후회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고인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써 카지노 도박을 선택했으나, 그 속에서도 삶의 낙(樂)을 발견하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들은 도박이 삶의 의미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²⁾ 하지만 사례 3에서 고인은 “행복을 없애는 것은 바로 ‘행복에 대한 추구’이다”라는 Frankl(1977: 52)의 말처럼 역설적이게도 의미에 집착함으로써 의미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배운 놈들은 겉으로는 소탈한 척 하지만 나같이 못 배우고 무식한 놈은 언제나 무시한다.”(사례 1의 유서).

2) 연구자들은 사례 3을 통해 카지노 도박과 자살에 관한 이론적 검토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인간에게 있어 카지노 도박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쾌락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인간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 역시 새롭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도출된 연구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삶의 의미’에 대한 Frankl(1977)의 관점을 새롭게 적용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고 자신이 더 살아도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에 생을 마감한다고 적혀있었어요”(사례 2)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카지노도 의미 없다. 돈을 따도 무슨 의미가 있고 잃어도 무슨 의미가 있나”(사례 3의 유서)

나. 가족과의 갈등

가족은 인간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지지체계이다. 그러나 카지노 도박에 빠져든 이후 고인들은 모두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했다. 가족관계의 문제는 선행연구(김효창, 2006)에서도 이미 자살자의 취약성 요인으로 분류되었듯이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도박의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사례 1의 경우 참여자의 회고에 의하면 고인의 막내딸은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토지가 차례로 넘어가자 “자기 아파트가 날아갔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경기도 ○○의 토지와 서울 ○○의 재개발 예정 아파트를 팔아 두 아들에게는 사업자금과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는 딸 몫으로 사둔 것이었다. 급기야 딸은 “상가마저 날아갈지도 모르니 팔아서 나누자”고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도 금이 갔다고 한다. 더욱이 참여자는 자신이 남편에게 퍼부은 악담에 대해 지금도 후회하고 있었다. 상스러운 욕은 물론 지독한 악담을 했다고 한다. 당시 참여자 역시 화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수면제와 술이 없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맞바람’이라는 말처럼 자신도 도박을 하고 싶었지만 성격상 도박은 취미가 없었다고 했다. 참여자는 이왕 망할 바에 같이 망하자며 ‘카바레’와 ‘나이트클럽’을 빈번하게 출입했다고 한다. 특히 참여자는 남편이 자살하기 두 달 전의 일을 고통스럽게 회고했다. 참여자는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끝난 후 그곳에서 처음 만난 낯선 남성과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한다. 고인은 자신의 부인이 「△△△ 나이트클럽」과 「△△ 카바레」를 자주 간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날도 부인이 귀가하지 않자 부인을 찾으러 나선 것이다. 그러다 낯선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부인을 목격한 것이다. 고인은 그날 자신을 몰고러미 쳐다보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갔고 추후에도 그 일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볼 때 사례 1의 경우 고인의 죽음은 정신분석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랑하던 대상에게 향하던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로 전향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Menninger(1973)가 언급한 것처럼 어찌면 특수한 상황에서 외부로 향하는 ‘죽이고 싶은 소원’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격성이 자기에게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2의 경우 고인과 참여자는 아파트가 팔리고 18평짜리 연립주택 전세로 이사를 간 이후부터 부부관계는 금이 갔고, 딸들 역시 연립주택의 불편함 때문에 은근히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다고 한다. 부부는 원수처럼 싸웠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강박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해갔다고 한다. 순정적이었던 참여자 역시 악에 받쳐 싸웠고 가정은 매일 매일이 전쟁터였다고 한다. 급기야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례 3의 경우 고인의 카지노 출입을 그의 부모들이 알게 되어 대노한 고인의 아버지는 “집안 망칠 놈”이라 하며 「한정재산자 신고」를 신청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인은 “그게 뭐 대수야”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고인의 아버지는 실향민으로 성격이 단호하고 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의 눈 밖에 나면 자식에게도 인정을 베풀지 않는 마치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영조”와 같은 인물이라고 유족(아내)은 작고한 시아버지를 회고했다.

“오빠들은 이미 받을 것 다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얼굴도 못 생기고 학벌도 없는데 돈마저 없으면 어떻게 시집을 가냐고...”(사례 1)

“서로 각방을 쓰고 싶었지만 방이 두 개라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지냈지만 서로 남 보듯이 했어요”(사례 2)

“아버지가 한정재산자 신고 신청을 하겠다고 서류를 준비해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도 그게 뭐 대수야! 하는 식이었어요”(사례 3)

다. 소극적인 대인관계

자살 전 고인들은 약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고인들은 선행연구(서종한 등, 2012)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살 전 주변에 걱정이나 문제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들의 이러한 대인관계는 Durkheim(1897)이 제시한 이기적 자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이유는 만약 자살을 개인적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사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던 타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약해져 ‘노름꾼’이라는 낙인과 ‘고립’이라는 위험요인이 고인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1에서 고인은 사회적 관계가 많지 않았다.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기도 했지만 사업에 바빠 장의업에만 충실했다.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산악회였고 고인은 산악회 ‘총무’를 맡아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노랭이”, “짚돌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남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인색했지만 산악회에는 때로 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사례 2의 경우 고인은 상인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한다. 시장번영회에 어쩔 수 없이 가입했지만 상인회나 봄·가을에 한 번씩 있는 야유회에도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연히 다른 상인들도 고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한다. 상인들은 고인이 보안부대 출신임을 들어 세상 바뀐 줄도 모르고 목에 힘주는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특히 고인은 아내의 친정식구 들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처가 경조사나 장인·장모 생일 등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처가쪽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다. 아내의 큰 올케는 성격이 활달하고 사교적이면서도 사근사근했다. 고인에게 다가가 농을 하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지만 고인은 예의상 응대했을 뿐 항상 거리를 두었다고 한다.

사례 3에서 고인의 사회적 관계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통상의 경우와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은 지역사회의 「약사회」, 「대학동문모임」, 실향민들과 자녀들의 모임인 「○○향후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했다. 또한 지역의 어릴 적 친구들과 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다. 하지만 참여자는 이러한 관계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로 인지하고 있었다. 참여자의 회고에 의하면 고인은 동창모임에 다녀와도 동창들의

근황에 대해 말이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대학 동창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고인은 “인생은 누구나 다 한번은 가는 것”이라며 덤덤히 말했다고 한다. 고인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유대의 질 역시 형식적이고 도구적 목적이 강했다고 분석된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가족 일보다 먼저 챙기고 뛰어다녔던 산악회에서는 쫓겨났다.”(사례 1의 유서)

“개인택시 하는 친구와 간혹 어울렸지만 술 한잔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수준이었지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었어요.”(사례 2)

“동창회에 다녀와도 근황에 대해 말이 없었어요. 물어보려고 하면 ‘약사들 사는 게 다 그렇지 별다른 놈 있나’ 이런 식이었어요.”(사례 3)

라. 자살에 대한 징후

참여자들에 의해 구술된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고인들은 선행연구(Juhnke et al., 2007)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망하기 전 ‘자살 위험 징후’를 보였다. 특히 사례 1과 3의 경우 고인들은 자살하기 전 행동상의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행동변화는 고인들의 심리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사례 1의 경우 고인은 자살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루에 열 마디 정도도 안했다”고 한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병어리 수준이었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로 허공을 자주 바라보았다고 한다. 아내가 계속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더욱이 고인은 자살하기 보름 전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고 한다. 고인은 평소 종교에 관심도 없었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고 한다. 참여자의 큰며느리는 가톨릭 신자인데 어느 날 가톨릭과 개신교 이야기가 나오자 “교회는 예수를 믿고 성당은 마리아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교회에 들렀다는 이야기는 자살 후 교회 집사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목사와 집사를 거쳐 유족에게 전달된 이야기는 고인의 죽음 생각과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고인은 평생 처음 간 교회에서 목사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한다. 고인의 변화된 행위 속에서 본 연구자들은 자살관념(Ideation)과 희망상실(Hopelessness) 그리고 체념

(Withdrawal)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사례 1의 경우 고인은 Seligman(1980)이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상적 경험 이후에 이에 대처하여 반응하려는 동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고인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울증과 학습된 무기력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고인은 자살 전 혼자서 고향동네에 다녀왔다고 한다. 참여자가 늦게 귀가한 고인에게 “어디 갔다 왔나”라고 묻자 “응, 집에”라고 했고 “당신집이 여긴데 무슨 집이에요?”라고 묻자 “응, 고향집”이라고 간단히 대답하고 그 후로는 더욱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인이 자살하기 약 한 달 전 딸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했고 며칠 후 남자친구를 데려왔다고 한다. 딸은 스물 네 살이었다. 유족은 너무 결혼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남편과 의논했으나 “우리집 전통인데”라고 간단히 말한 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고 한다. 고인의 두 아들 역시 25세, 27세에 결혼을 했다. 상견례 날 유족은 예비사위를 맞기 위해 가사도우미까지 불러 대청소를 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등 바쁘게 보냈지만 고인은 “면도라도 하라”는 아내의 강권에 마지못해 면도만 했을 뿐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고 한다. 예비사위가 오자 고인은 형식적으로 나이와 직업, 부모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만 하고 덕담이나 훈계 등의 말은 없었다고 한다. 예비사위가 돌아간 후 건성으로 “무난하네”라고 대답한 후 앞으로의 양가 상견례 등 모든 것을 아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후 ‘통장’을 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고인의 죽음은 계획된 자살인 것으로 이해된다. 고인이 죽을 결심했다는 흔적은 그가 남긴 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3의 경우 고인은 자살하기 석 달쯤 전, 갑자기 여행을 가겠다고 주말에 밤차를 타고 어디인가를 다녀왔다고 한다. 참여자는 궁금했으나 남편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참여자는 남편이 자살하기 약 한 달 전 교사들의 「현장연구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탔다고 했다. 인사고과 평점이 올라갈 수 있고 교사 개인으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남편은 “축하해”라고 건성으로 대답했고 빈말이라도 ‘자축’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고인이 자살하기 약 보름 전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한다. 참여자는 고인이 운영하던 약국 카운터 종업원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날 저녁 고인은 참여자에게 소매치기를 당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참여자는 속이 상해 묻자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느냐”며 태연해 했다고 한다. 물론 경찰에 신고조차 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고인의

남긴 자살 징후는 삶의 목적상실(Purposelessness)과 희망 상실(Hopelessness)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례 3의 경우 고인은 사례 1의 경우와는 다른 징후들을 보였다. 사례 3에서 고인의 모습은 우울증이나 무기력 보다는 ‘실존적 공허’상태³⁾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Frankl & Kreuzer, 1982: 130). 즉, 의미 상실감 혹은 공허감이 고인을 힘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가난이 지긋지긋해 등골이 휘도록 일하고 운도 따라주어 돈을 벌었는데 돈 번 게 후회가 된다. 돈이 없었으면 카지노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돈 때문에 그런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허무하고 차라리 세상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사례 1의 유서)

2. 카지노 도박과 자살의 연관성

가. 빠져들고 늦은 후회

선행 연구(김충렬, 2010)에서처럼 고인들은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한 이후 어김없이 카지노의 마력에 빠져들었다. 사례 1의 경우 고인은 강원도 남부지역을 여행하다가 부인과 함께 카지노에 들렀다. 처음 카지노에 들른 고인의 반응은 ‘신기함과 경악’ 그 자체였다. 참여자의 진술에 의하면 연신 “야~” “야~”, “어휴~” 같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서울 구경 처음 해본 촌놈”처럼 눈이 휘둥그레져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고 했다. 고인과 참여자는 그날 재미삼아 10만원으로 머신게임을 했고 30만원을 탔다. 참여자는 그 30만원에 “마가 끼었다”고 술회한다. 카지노에서 돌아온 후 고인은 미친 듯이 카지노를 다녔다. 사업은 형식적이었고 모든 관심은 카지노로 가 있었다고 한다.

사례 2의 경우 고인은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과 용돈 정도의 판돈을 놓고 고스톱을 치다가 판돈이 큰 하우스로 옮겨갔다고 한다. 그리고 누구의 권유인지 모르지만 카지노

3) Frankl이 제시한 용어인 ‘existentielles vakuum’은 보통 ‘실존적 공허’ 내지는 ‘실존적 진공’으로 번역된다. 이러한 존재론적 공허는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Frankl, 2007: 49). 특히 ‘실존적 공허’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Frankl & Kreuzer, 1982: 130).

를 출입하기 시작했고 한 달에 최소 10일 이상은 영업장을 비우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고 한다. 참여자는 고인의 도박을 막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했다. 친정식구들을 동원하고 시댁 부모들을 동원했으나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더구나 친정 오빠와는 칼부림 직전까지 간적도 있다고 한다. 특히 사례 2의 경우 고인은 선행연구(김충렬, 2010)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방’에 역전시킬 수 있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 의하면 고인은 부진한 사업의 탈출구로 도박을 선택했다고 한다. 군대시절 고스톱을 하면 거의 90% 이상을 뺏고 동네의 상인들과 고스톱을 해도 돈을 잃는 경우보다 따는 경우가 더 많았기에 도박을 하면 사업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하우스에서 거액을 잃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또 다시 도박을 했다가 또 잃는 악순환이 연속되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도박에 대한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만이 남아있었다.

사례 3의 경우 고인은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하자 사업체(약국) 경영에는 소홀했다. 자기 대신 월급을 지불하는 약사를 고용했고, 하루에 약이 얼마나 팔리는지, 월수입이 얼마인지 통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례 3의 경우 고인은 대박에 대한 환상보다는 ‘스릴감 넘치는 게임’으로써 카지노 도박에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

“귀신에 홀리거나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사례 1)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했고 화투장 만지는 인간은 절대로 사위 삼지 말라는 말과 함께 새 출발 하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적혀있었어요.”(사례 2)

나.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관계악화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재산손실은 삶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모든 사례에서 고인들은 도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도박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한 인간을 고립시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례 1의 경우 고인은 사망 당시 카지노 도박으로 25억 정도를 탕진했지만, 집값이 비싼 지역에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시가 30억 정도로 추산되는 상가건물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심지어는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결국 고인은 애착을 갖고 활동했던 산악회 활동을 중단했으며, 가족들마저도 등을 돌리자 인생에 대한 후회로 생을 마감했다. 즉 돈을 잃은 ‘상실감’ 보다는 관계의 단절로 인해 찾아온 ‘고립감’이 더 삶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는 도박행위를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적 관점’이 도박문제를 겪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Wong et al., 2010).

무엇보다 고인들의 죽음은 Sartre(1943)가 언급한 ‘타자의 시선’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어쩌면 고인들은 주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타자의 시선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는지 모른다. 결국 타자는 ‘상처 줌’을 통해 도박자들에게 개입하게 되고, 도박자들은 타자와의 필연적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비상구’를 향해 몸을 던지게 되는 지도 모른다.

다. 도박과 자살의 유전성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유전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고인들의 가족력을 살펴보았으나 가족 중 자살한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김충렬, 2008; 이광자, 2011; Sorenson & Rutter, 1991; Jamison, 1999)에서 언급한 자살의 유전적 또는 기질적 요인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사례 1에서 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고인의 아버지는 주벽과 노름벽 때문에 소작농으로 살아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도박과 관련된 유전성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3. 카지노 도박과 자살에 관한 종합적 이해

모든 사례에서 고인들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했으며,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소극적 대인관계는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자살징후에서 나타난 심리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살징후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는 ‘자살 선택’이라는 심리적 변화

가 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카지노 도박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카지노 도박의 매력은 고인들을 도박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도박중독은 고인들을 재정악화와 관계악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이러한 개별적 위기는 결국 한 인간이 후회만 남은 쓸쓸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다. 반면 도박중독과 자살의 유전성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도박에 빠져들고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고인들의 자살 원인은 자살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자의 자살을 단순히 도박중독으로 인한 재정악화의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살 요인들과 도박중독이 결합하여 발생한 복합적인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부검 방식을 활용하여 카지노 이용자들의 자살원인을 분석해 보고, 실제 카지노 도박과 자살이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듯이 카지노 이용자들의 자살행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첫째, 사망 전 고인들은 모두 열등감, 분노, 의미 상실감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평소 고인들의 행동에서 들어났다. 둘째, 카지노 도박에 몰입한 이후 고인들은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했다. 가족 내에서의 갈등은 선행연구(김효창, 2006)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자살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특히 가족 내 갈등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평소 고인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소극적 대인관계는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Durkheim(1897)이 제시한 이기적 자살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 내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던 타인과의 유대관계가 헐거워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선행연구(Juhnke et al., 2007)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망 전 고인들은 ‘자살 위험 징후’를 보였다.

이러한 자살 징후는 평소와는 다른 고인의 행위에서 드러났으며, 참여자들의 구술을 통해 묘사된 고인들의 행위에는 희망상실, 체념, 우울감, 의미상실감, 공허감 등이 담겨져 있었다.

다음으로 카지노 도박과 자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연구자들은 카지노 도박으로의 ‘빠져들고 늦은 후회’,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관계악화’, 도박과 자살의 ‘유전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첫째,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한 이후 고인들은 선행연구(김충렬, 2010)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김없이 ‘카지노의 마력에 빠져 제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유족의 구술(口述)처럼 ‘마가 깬’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고인들의 유서에는 때늦은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둘째, 카지노 도박으로 인해 고인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자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하게 몰고 간 것은 재정악화보다는 경제적 손실로 인한 관계악화였다. 사망 전 고인들은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 때문에 사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배제당하고 고립되어 있었다. 이는 도박문제를 바라보는 ‘문화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었다. 결국 고인들은 Sartre(1943)가 언급한 것처럼 ‘타자의 시선’ 앞에서 강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연구자들은 카지노 도박과 자살의 ‘유전성’을 탐색하기 위해 고인들의 가족력을 살펴보았으나 고인의 가족 중 자살한 사람은 없었으며, 다만 사례 1에서 도박의 유전성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도박과 연계된 자살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박으로 인한 재산손실과 자살’이라는 단순한 이해의 범위를 넘어 카지노 이용자의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도박과 연계된 자살을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유혹이 없다면 유혹에 빠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도박과 연계된 자살을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살에는 열등감, 분노, 허무감 등 고인들의 평소 심리상태가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임상적 개입 시 도박중독이라는 현상 이면에 있는 개인의 기질, 성격, 성장배경, 가족력 등 다양한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박중독자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카지노 이용자의 자살 원인

에는 가족 내 갈등요인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때문에 도박중독자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생활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고인들의 자살은 취약한 대인관계와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도박중독자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그들을 '노름꾼'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서 감싸 안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에 대한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반적인 자살과 마찬가지로 사망 전 고인들은 자살 징후를 보였다. 이에 도박중독 관련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징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이라는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적은 사례수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카지노 이용자의 자살과 관련된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하여 확장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살사건에 대해 회상하고 구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때때로 심리적 고통을 동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유족, 특히 고인의 부인들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죽음에 대해 자녀, 부모 등 또 다른 가족 혹은 지인들이 가지는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기 힘들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 및 지인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기 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는 카지노 도박자의 자살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때문에 인터넷 게임, 경마 등 다양한 종류의 도박과 연계된 자살문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종류의 도박과 연계된 자살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리적 부검 연구는 기본적으로 회고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료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인들이 남긴 유서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고인이 남긴 일기, 편지, SNS상에 남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선(2013). 2013년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http://kksun290.blog.me>. 2014.3.30. 인출.
- 김남식(1999). 자살에 대한 이론적 이해. 상담과 선교, 99-겨울, pp.14-38.
- 김충렬(2008). 기독교인의 자살과 그 대책: 목회상담의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16, pp.63-98.
- 김충렬(2010). 도박중독의 원인에서 의지적 요인의 연구. 신학과 실천, 22, pp.209-254.
- 김효창(2006). 성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pp.15-33.
- 박병철(2008). 자살의 사회적 이해. 한국자살예방협회(편). 자살의 이해와 예방. 서울: 학지사, pp.95-109.
- 박형민(2010). 자살 차악의 선택. 서울: 이학사.
- 변광배(2005). 존재와 무: 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서울: 살림.
- 서종한, 이창환, 김경일, 김성혜(2012). 한국 자살사망자 특징: 사례-대조 심리적 부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pp.323-344.
- 송혜진(2013). 군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 해군 장병을 중심으로. 과학수사학, 7(2), pp.126-137.
- 신성원(2005). 심리부검 연구의 실무적 활용 및 윤리적 고려사항. 한국범죄심리연구, 1(1), pp.231-252.
- 여은경(2012). 청소년 자살에 관한 이론 및 연구 고찰. 아동가족치료연구, 11, pp.1-16.
- 육성필(2008). 자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자살예방협회(편). 자살의 이해와 예방. 서울: 학지사, pp.83-94.
- 이용식(2004).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충동의 인지적 치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실천신학 목회상담학 전공,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인혜(2005). 카지노 유치지역 주민의 도박참여 및 도박중독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강원도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4), pp.67-82.
- 이준우, 손덕순(2007).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경기: 서현사.
- 이태원, 강상석, 김진광(2008). 합법적 도박이 도박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이현주(2009). 타자성과 실존의 선택 : 사르트르를 통해 본 여배우 장자연의 죽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정선영, 손덕순, 김지영(2006). 국가사행산업 정책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서울: 국회사무처.
- 한국건강증진재단(2013). 자살예방 다큐멘터리 '33분마다 떠나는 사람들' 보도자료. <http://www.khealth.or.kr>. 2013.10.25. 인출
- 한국자살예방협회(2009).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구축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현미지, 최선, 신경철, 황태영(2013). 병적 도박 집단의 신경심리학적 특징 : 알코올 의존 집단과의 비교.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2), pp.89-104.
- Andersona, A., Sisaska, M., Värnikab, A. (2011). Familicide and suicide in a case of gambling dependence.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2(1), pp.156-68.
- Batterby, M., Tolchard, B., Scurrah, M., Thomas, L. (2006). Suicide Ideation and Behaviour in People with Pathological Gambling Attending a Treatment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4(3), pp.233-246.
- Beck, A. T. (1963). Thinking and depression: 1, Idiosyncratic content and cognitive distor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9, pp.324-333.
- Beck, A. T. (1964). Thinking and depression: 2, *Theory and 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0, pp.561-571.
- Beck, A. T., Rush, J., Shaw, B. F.,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원호택 외 6명(역)(2005). *우울증의 인지치료*. 서울: 학지사.
- Blaszczynski, A., Farrell, E. (1998). A Case Series of 44 Completed Gambling-Related Suicide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4(2), pp.93-109.
- Chew, K. S. Y., McCleary, R., Merrill, V., Napolitano, C. (2000). Visitor suicide risk in casino resort area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9, pp.551 - 570.
- Durkheim, E. (1897). *Le suicide*. New York: Penguin. 김충선(역)(2005). *자살론*. 경기: 청아출판사.

- Ellis, T. E., Newman, C. (1996). *Choosing to Live: How to defeat suicide through cognitive therapy*.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s. 육성필, 이혜선(역)(2005). *자살하고 싶을 때*. 서울: 학지사.
- Frankl, V. E., Kreuzer, F. (1982). *Im Anfang War Der Sinn*. Vienna: Franz Deuticke. 김영철(역)(2006).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경북: 분도출판사.
- Frankl, V. E. (1977). *The Unheard Cry for Meaning: Psychotherapy and Humanism*. New York: Touchstone Books. 오승훈(역)(2005). *의미를 향한 소리없는 절규*. 경기: 청아출판사.
- Frankl, V. E. (2007). *Psychotherapie für den Alltag: Rundfunkvorträge über Seelenheilkunde*. Freiburg: Verlag Herder. 강윤영(역)(2008). *빅터 프랭클의 심리의 발견*. 경기: 청아출판사.
- Freud, S. (1917).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ume XIV (1914-1916)*. Straghey, J.(Trans.). London: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pp.237-258.
- Jamison, K. R. (1999). *Night falls fast*. New York: Vintage. 이문희(역)(2004).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 생물학적인 자살의 이해*. 서울: 뿌리와 이파리.
- Juhnke, G. A., Granello, P. F., Lebrón-Striker, M. A. (2007). *IS PATH WARM? A suicide assessment mnemonic for counselors (ACAPCD-03)*.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Lester, D., Jason, D. (1989). Suicides at The Casino. *Psychological Reports*, 64, pp.337-338.
- Lincoln, Y. S.,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lifornia: Sage.
- Menninger, K. A. (1973). *Man against Himself*. Boston: Mariner Books. 설영환(역)(1991). *생명을 존중하며 삶을 사랑하는 마음*. 서울: 고려서원.
- Nichols, M. W., Stitt, B. G., Giacomassi, D. (2004). Changes in Suicide and Divorce in New Casino Jurisdiction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0(4), pp.391-404.
- OECD (2014). *OECD Health Data 2014*. <http://www.oecd.org/>. 2014.9.18. 인출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 California: Sage. 유태균(역)(2005).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경기: 나남출판.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2nd ed.)*.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 Sartre, J. P. (1943). *L'Être et le Neant*. Paris: Gallimard. 정소정(역)(2009). *존재와 무*. 서울: 동서문화사.
- Séguin, M., Boyer, R., Lesage, A., McGirr, A., Suissa, A., Tousignant, M., Turecki, G. (2010). Suicide and gambling: Psychopathology and treatment-seek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4(3), pp. 541-547.
- Seligman, M. E.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New York: W.H. Freeman & Company. 윤진, 조근호(역)(1988). *무기력의 심리*. 서울: 탐구당.
- Shneidman, E. S. (1994). The Psychological Autopsy. *American Psychologist*, 49(1), pp.75-76.
- Shneidman, E. S. (2004) *Autopsy of A Suicidal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renson, S. B., Rutter, C. M. (1991). Transgenerational Patterns of Suicide Attemp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6), pp.861-866.
- Wong, P. W., Chan, W. S., Conwell, Y., Conner, K. R., Yip, P. S. (2010). 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of pathological gamblers who died by suicid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0, pp.213-216.

강준혁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죽음, 중독, 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이며, 현재 자살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jhkjeju@naver.com)

이근무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이며, 현재 도박 중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lee1051km@daum.net)

이혁구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질적연구, 도박 중독, 권력학 등이며, 현재 도박 중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leehk@skku.edu)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utopsy of Casino Suicides

Kang, Jun Hyeok

(Sungkyunkwan University)

Lee, Keun-Moo

(Sungkyunkwan University)

Lee, Hyuk Koo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Casino suicides and tries to show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icide and Casino gambling by using the psychological autopsy method. Three Casino gamblers who committed suicide were chosen by purposive sampling, and their bereaved wives were interviewed. Padgett(1998)'s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the collected data.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suicides were related to the suicides' negative emotion such as inferiority complex, anger and emptiness; to family conflicts caused by Casino gambling; to the pass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 the psychological changes as suicide symptom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d some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Keywords: Casino Gambling, Suicide, Family, Psychological Autopsy